

서구, 계속되는 무더위에 생수 나눔 27일까지 연장

폭염 지속에 주민 건강·안전 위해 27일까지 연장 운영

주요 건물목 20곳서 얼음생수 무료 제공...폭염 대응 강화



'착한생수' 나눔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다음 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착한 생수' 나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서구는 당초 이달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을 27일까지 4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착한 생수'는 폭염 속 주민들이 이동 중 잠시 더위를 식히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사업이다. 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건물목 20곳에 냉장형 보관함을 설치해 누구나 무료로 얼음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비롯해 야외 근로자, 배달 종사자 등 무더위 속에서 도보 이동과 야외 활

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구는 2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 4시 등 하루 세 차례 각 장소에 얼음 생수 100병씩 공급한다. 이어 연장 운영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낮 시간대에 맞춰 낮 12시와 오후 3시 등 하루 두 차례 얼음생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폭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기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폭염에 취

약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과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생수 나눔 장소를 적극 안내해 폭염 피해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각 생수 보관함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생수 공급량과 이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현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이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북구, '바로문자 365' 한 달 500건 접수...87.8% 처리

민원 처리율 87.8%...안전·교통 분야 집중

장기 검토 민원도 현장점검 등 지속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운영 중인 직통 민원창구 '바로문자 365'가 시행 한 달 동안 5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87.8%의 처리율을 기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문자 365'는 주민 소통 강화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정책으로 '24시간 접수·48시간 이내 답변·100시간 이내 현장 조치'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생활 불편 사항이나 필요 정책을 건의하고 싶을 때 관련 내용을 직통 번호인 010-4107-8572(바로처리)

로 문자 송부하면 공식 민원으로 처리된다.

7월 한 달간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총 500건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6건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생활안전이 19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 194건(38.8%), 공원녹지 53건(10.6%), 보건복지 25건(5%), 주민주권 13건(2.6%), 문화체육 13건(2.6%), 경제산업 3건(0.6%) 등이 뒤를 이었다.

CCTV 설치, 불법투기 취약지 환경 정비, 통행로 보수 등 생활안전과 도로교통 분야가 78.6%를 차지해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500건의 민원 중 총 439건(87.8%)을 처리 완료했다.

이외 61건의 민원에서 처리 중인 민원은 46건이며 15건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장기 검토 민원은 예산 및 사업 여건을 종합 검토 후 주민에게 안내하고 별도 관리대상 작성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바로문자 365 운영 한 달 동안 신속한 민원 처리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24시간 열린 소통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접수된 의견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책임감 있

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생활안전과 도로교통 분야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우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CCTV 설치와 불법투기 문제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단순 생활불편 사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에게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장기 검토 민원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정관 기자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